전남 예카테리나, 한국 바이애슬론 금빛 새 역사 쓰다

HARBIN 2025 ASIAN WINTER GAMES

여자 7.5㎞ 스프린트 2위로 달리다 막판 스퍼트 대역전극

전남 바이애슬론팀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가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카테리나는 11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 경기에서 22분 45초 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한국이 거둔 첫 금메달로, 이전까지는 2003년 아오모리 대회 남자 계주에서 획득한 은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다.

예카테리나는 경기 초반 2.4㎞ 지점까지 앞서다가 이후 중국의 탕자린에게 선두를 내줬다.

6.0㎞ 지점을 통과할 때에도 2위에 머물렀던 예카테리나는 마지막 스퍼트를 발휘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카테리나의 뒤를 이어 중국의 멍팡치가 2.4초 차로 뒤진 22분 47초 8로 2위에 올랐고, 경기 중반까지 선두를 유지했던 탕자린은 23분 01초 0으로 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 벨리키 우스튜크에서 태어나 2016년 대한민국으로 특별귀화해 한국 대표로 활동해 온 예카테리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5㎞ 개인경기에서 16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 선수 중 올림픽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 중 일본 출신 귀화 선수인 아베 마리야(포천시청)는 10위(24분 12초 1)에 올랐으며, 고은정(전북체육회)은 11위(24분 22초 0), 정주미(포천시청)는 14위(25분 21초 5)로 경기를 마쳤다.

전남 바이애슬론 팀 김상욱 감독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심으로 금메달을 축하한다. 예카테리나는 훈련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한 선수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편하게 시합 뛰고 오라고 했다. 잘 뛰고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오라고 조언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애슬론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메달을 딴다는 전제로 시작하다 보면 주변에서 욕심을 내고 선수들은 긴장감이 더 심해진다"며 "모든 영광은 선수들이 갖는 거다. 앞으로도 평상시와 똑같이 그동안 훈련해 온 것을 바탕으로 기량을 유지하면서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전남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예카테리나가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의 새 역사를 썼다. 전남의 이름을 세계에 빛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한 예카테리나 선수와 지도해주신 김상욱 감독님의 헌신 덕분에 이번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예카테리나는 소속 전남 바이애슬론팀 선수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금빛 질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가 11일 중국 헤이룽장성 북동부 야부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안 동계 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AG 메달만 9개…이승훈, 최다 메달 신기록 경신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여자 팀은 동메달 획득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36·알펜시아)이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이승훈은 11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에서 정재원(의정부시청), 박상언(한국체대)과 함께 3분47초99의 기록으로 중국(3분45초94)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3분52초93을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다.

3조에서 일본과 경쟁한 대표팀은 힘차게 출발했다. 한국은 레이스 초반 일본에 뒤졌으나 중반 이후 속도를 끌어올리며 역전에 성공했다.

2번 주자로 나선 이승훈은 후배들을 이끌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한국은 1조에서 1위 기록을 쓴 중국과 기록 격차를 줄여나갔으나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와 2017년 삿포로 대회에서 8개의 메달(금7·은1)을 따냈던 이승훈은 통산 9번째 메달로 쇼트트랙의 김동성(금3·은3·동2)을 제치고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대회 남자 5000m에서 4위를 기록한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을 끝으로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쳤다.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메이저 국제 종합대회 은퇴 무대로 삼았다.

남자 팀 추월은 장거리 전문 선수들이 출전하는 단체 종목으로 3명의 선수가 400m 트랙을 8바퀴 도는 경기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어 열린 여자 팀 추월에선 대표팀 박지우(강원도청), 김윤지(동두천시청), 정유나(한국체대)가 3분10초4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땄다.

이번 대회 여자 팀 추월은 4개 팀이 출전했고, 카자흐스탄이 기권하면서 나머지 3개 팀이 메달을 나눠 가졌다.

중국이 3분2초75로 금메달을 땄고, 일본이 3분5초52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팀 추월은 400m 트랙을 6바퀴 돈다. /연합뉴스

빙속 차민규, 남자 1000m '은빛 질주'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전문 차민규(동두천시청)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차민규는 11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남자 1000m에서 1분 9초63의 기록으로 닝중옌(중국·1분 8초81)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차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팀 스프린트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0조에서 중국 롄쯔원과 함께 달린 차민규는 아웃코스에서 힘차게 출발했다.

그는 첫 200m 구간을 전체 선수 중 가장 빠른 16초50에 주파했다.

600m 구간까지도 41초71로 전체 1위였다.

그러나 남자 500m가 주 종목인 차민규는 막판 스퍼트에서 밀려 아깝게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다.

동메달은 차민규와 함께 뛴 롄쯔원이 1분9초68의 기록으로 땄다. 닝중옌은 아시아신기록을 세웠다.

11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한 차민규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민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회 연속 남자 500m 은메달을 딴 단거리 간판이다.

차민규는 올 시즌 스케이트 장비 문제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고, 국내 선발전에서도 부진해 이번 대회 남자 500m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주 종목이 아닌 남자 1000m와 남자 팀 스프린트에만 출전해 모두 은메달을 따내며 굵직한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이가영 한국실업양궁대회 동메달

광주시청 양궁 이가영(사진)이 제27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실내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가영은 충북 옥천군 옥천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리커브 일반부 개인전 16강에서 손서빈(여주시청)을 6-2로 꺾은 뒤, 8강에서 이은아(홍성군청)을 7-3으로 제쳤다.

이후 4강에서 김세연(홍성군청)을 상대로 6-2 승을 기록한 이가영은 준결승에서 홍수남(인천시청)에 5-6으로 패하며 김예후(전북도청)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가영은 지난해에는 단체전에서 3위에 올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장성군, 전남체전·장애인체전 성화주자 모집

장성군이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화려한 서막을 여는 성화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장성 일원에서 치러지는 전남체전은 오는 4월 18~21일, 전남장애인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군은 전체 성화봉송 구간 가운데 11개 읍면 봉송구간을 달릴 주자 120명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군 소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10세 이상 70세 이하 주민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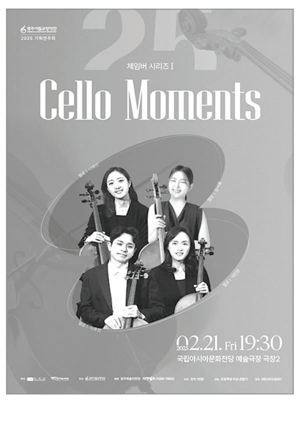
체전 성화는 오는 4월 17일 주주자와 부주자 각 1명, 호위주자 8명으로 구성된 주자봉송단이 백암산 국기단에서 채화하며, 11개 읍면 봉송 구간과 이색 봉송구간을 돌아 황룡강 정원무대에 성화를 안치한다.

한편, 군은 대회 개회식 당일 황룡강 정원무대의 성화를 공설 운동장 '옐로우시티스타디움'까지 옮기는 출정주자는 장성군체육회와 장성군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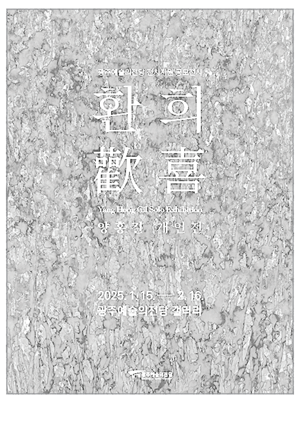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